

제35호·2017년 4월 19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물류동향

극동지역의 철도 네트워크 계속적으로 확대될 계획

- 2020년도까지 극동지역에 513.7km 규모의 신규 및 추가 철도가 건설될 예정임
 - 러시아철도청은 철도 건설을 위해 약 1,242억 루블¹⁾을 투자할 것임
 - 이 철도 건설은 '2010-2020년 러시아 교통 시스템 개발'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됨
- 위의 계획 중인 철도건설은 시베리아 횡단철도(TSR)와 바이칼-아무르 철도라인(BAM)의 간선 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임
 - 위 계획은 극동지역에서 창출될 화물 운송을 위한 대비뿐만 아니라 극동에 위치한 항만들과 다양한 지역 간의 교통 및 경제 연결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됨
 - 또한 몽골, 중국 그리고 북한 간 국경통과를 위한 철도건설도 포함되어 국경 간 연결도 이전보다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보임
- 철도 증설은 '2010-2020년 러시아 교통 시스템 개발' 프로젝트의 하위 프로젝트인 '본선 철도 교통'과 '철도 교통'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진행 될 예정임
 - 철도 건설을 위한 세부계획으로는 철도 네트워크의 부분별 처리능력 증대, 초중량 화물 적재를 위한 화차 이용이 가능한 철도 건설, 지속적인 장치 및 구조물의 현대화 등이 있음
- '2010-2020년 러시아 교통 시스템 개발' 프로젝트 시작 이후 극동지역에 거주인구가 2012년 기준 평균 인구보다 약1.5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음
 - 철도 네트워크의 확장과 교통서비스의 향상이 극동지역 인구증가로 연결되었다고 보여지며, 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음

자료: http://minvr.ru/press-center/news_minvostok/?ELEMENT_ID=5237(검색일: 2017년 4월 13일)

이하림 연구원

051-797-4758, harimyj@kmi.re.kr

1) 한화 2조4,803억 원(KEB하나은행 2017년 4월 13일 고시환율 기준)

콤포몰스크 선도개발구역, 산업단지 건설

- 인두스트리알니 파르크 '파루스'사가(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парк «Парус») 극동러시아 콤포몰스크-나-아무레 선도개발구역에 약 12.3ha 규모의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극동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함
 - '파루스'사는 동 선도개발구역에 항공기, 조선, 석유 생산 및 정제, 에너지 장치 등을 생산할 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할 계획임
 - 이번 건설에는 약 1억 7,500만 루블이 투자될 예정임
 - 첫 번째 건설 단계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며 약 5,000m² 면적에 제조공장 건설될 계획임
 - 두 번째 단계는 2019년도에서 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기존보다 약 10배 넓은 면적인 50,000m²에 제조공장을 건설하고자 함
- 동 산업단지 건설은 러시아 국내 기업 및 국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바롭스크 변강의 지역 경제 및 제조,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건설 목적임
- 콤포몰스크 선도개발구역의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하바롭스크 주정부와 극동개발공사는 가스, 상하수도 등의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함
 - 또한 콤포몰스크 선도개발구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도 건설할 예정임
- 현재 콤포몰스크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총 9개 업체로 약 85억 루블²⁾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, 약 1,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

자료: http://minvr.ru/press-center/news_minvostok/?ELEMENT_ID=5143(검색일: 2017년 3월 25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58, usea1004@gmail.com

2) 한화 1,697억 원(KEB하나은행 2017년 4월 13일 고시환율 기준)